

### 3. 화학물질 노출 관련 호흡기 질환의 직업병심의 인정 현황

총 77건의 화학물질 관련 호흡기 질환 중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호흡기 질환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어온 진폐의 경우 1 건이 화학물질노출과 관련되어 진단되었다. 진폐의 경우 대부분 분진과 관련되어 발생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PVC노출에 의해 발생한 특이한 사례였다.

화학물질에 의한 호흡기 질환 중 기관지 천식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암이 16건으로 그 다음으로 흔한 호흡기질환이었다.

직업성 질환으로 진단된 기관지 천식의 원인 화학물질로는 TDI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였으며, 반응성 염료가 4건이었다. MDI, 폼알데하이드, 폐기물도 직업성 기관지 천식의 원인으로 각각 3건이 진단되었고, 고무흡, 스티렌 및 혼합유기용제의 경우도 직업성 기관지 천식의 원인으로 진단된 바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폐암의 원인으로는 크롬이 4건, 배기가스가 3건, 용접흡이 3건으로 흔히 진단되었으며, 디젤연소물, COE, 콜타르 도료 및 PAH 등도 원인으로 진단되었다. 호흡기암 중 비강암은 PAH에 의한 질환으로 진단된 사례가 1건 있었다. 기타 폐질환으로는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무비동염 등이 진단된 바 있다(표 5).

직업성 호흡기 암은 선박건조업에서 4건, 건설업에서 3건 진단되었다. 가장 흔히 진단된 업무로는 용접공(3건)과 도장관련 업무(3건)이었으며, 정비공, 시설보수 및 운반공의 경우에도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직업성 호흡기암으로 진단되었다. 발암물질에 노출된 기간은 10년에서 30년이었다(표 6).